

# 고유가 추이가 서울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창의시정연구본부

박희석(연구위원·hspark@sdi.re.kr)

한진아(연구원·cycle13@sdi.re.kr)

## I. 고유가의 원인과 향후 유가전망

### 1. 유가 추이 및 전망

- 과거 제1·2차 오일쇼크 기간 중 유가 급등은 시리아-이스라엘의 중동전쟁, 이란-이라크 전쟁 등 정치적인 요인으로 일시적 공급충격에 의한 가격상승이었음
- 그러나, 최근 급등하고 있는 국제유가는 미국의 금리인하, 투기자금의 석유, 곡물 등 상품시장 유입, OPEC의 고유가 정책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함
- 이러한 초고유가 추이는 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을 진행시켰으며 국제유가를 결정하는 요인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어느정도 까지 급등하고 얼마간 지속될것인가를 예측하기에는 매우 어려움
- 따라서, 국제유가를 둘러싼 정치, 경제, 지정학적인 요인 등의 변화에 따라 향후 국제유가의 추이는 크게 3개의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전망할 수 있음(<그림> 1 참조)

## 국제 유가 시나리오별 전망



<그림 1> 국제 유가 시나리오별 전망

자료 : 매일경제(2008.07.07)

- 우선, 향후 국제유가가 200~300\$/bb1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시나리오로 가장 큰 변수로 이란-이스라엘 사태의 악화로 전 세계 원유공급량 중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와 세계 4위 석유 수출국인 이라크의 석유무기화에 근거함
- 다음으로 유가 초강세 시나리오와는 정반대되는 시나리오로 향후 국제유가에 대한 투기가 완전히 해소되고 중국 등 신흥시장과 미국의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급감으로 인해 60~70\$/bb1을 전망하는 반토막설도 있음
-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상당기간 국제유가는 100~140\$/bb1 사이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대표적으로 IEA(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은 향후 5년간 연평균 유가로 110\$/bb1 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 장기간에 걸쳐 향후 국제유가가 100\$/bb1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도 하반기 들어 본격적인 스태그플레이션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

## 2. 하반기 주요 금융사별 유가 전망

- 지난 7월 147.27\$/bb1(7월 11일)로 역대 최고점을 기록한 국제유가는 최근 급격한 하락세를 보여 122.19\$/bb1(7월 29일)로 약 2주 동안 17%의 하락을 나타냄
- 이러한 하락 추세에 관련하여 최근 국제유가 추이와 관련하여 향후 유가의 하락세가 어느 정도로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상존하고 있음
- 국제유가 하반기 하향 국면진입 전망
- 유가를 결정하는 요인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복잡하여 하반기 국제유가를 전망하기는 쉽지 않음
- 최근 6대 금융사가 국제유가를 수정 전망하였는데 그 중 골드먼삭스를 제외하고는 5개 금융사가 하반기 유가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하락폭은 평균 9.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이들 6개 금융사의 전망치를 종합하여 평균하면 하반기 국제유가는 대체로 126.6\$/bb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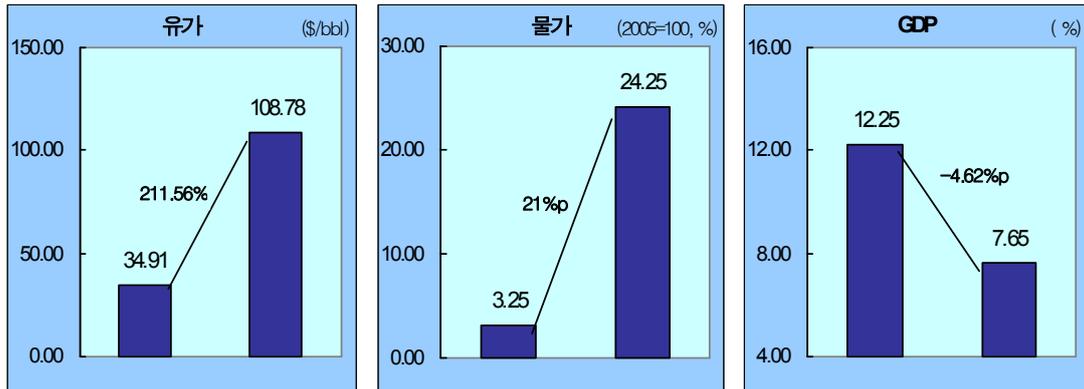
자료: Cover Story 유가, 나홀로 연속 하락. 내침감에 100달러 밑으로? (중앙일보, 2008.7.21)

<그림 2> 주요 금융사 유가 전망

## II. 고유가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 1. 오일쇼크 기간 중 유가, 물가, 소비, 성장 추이

#### 1) 제1차 오일쇼크 (1973년~197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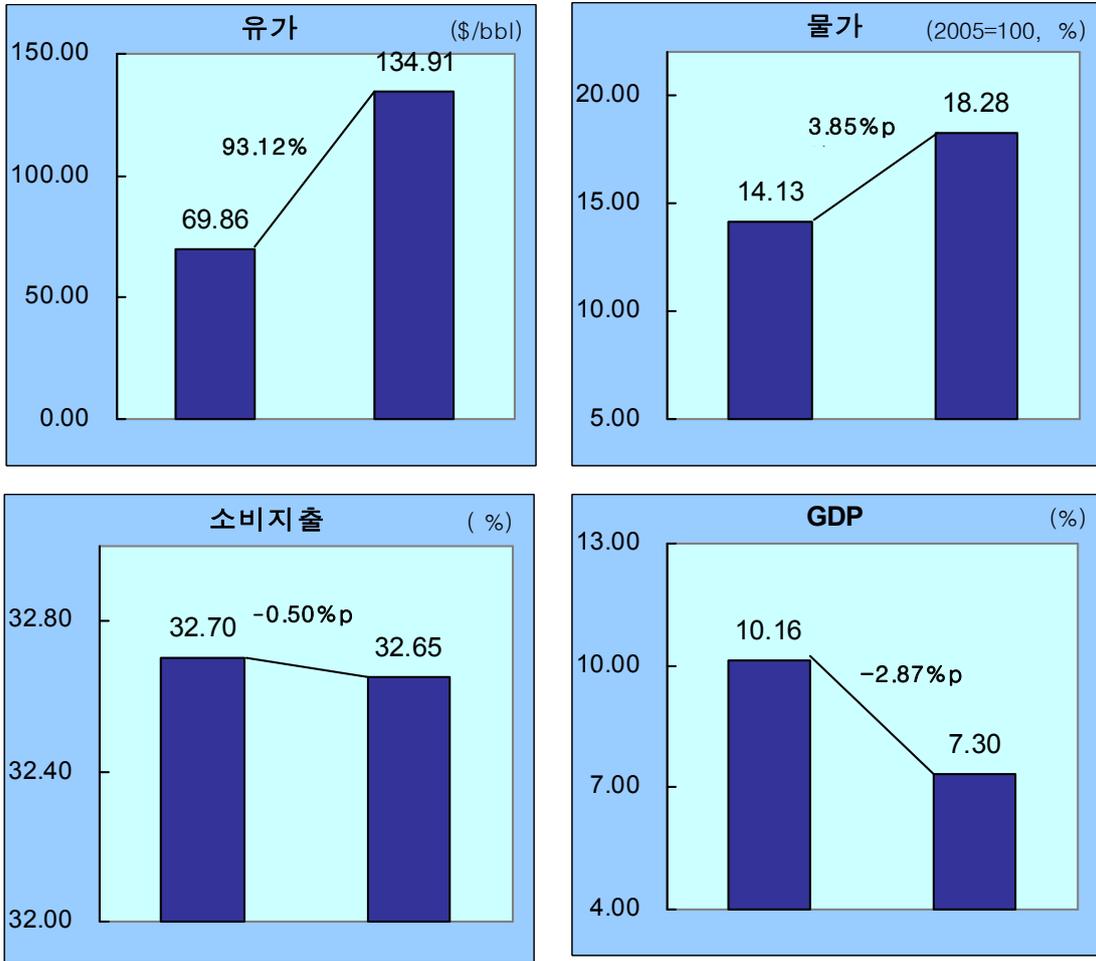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전국)

<그림 3> 제1차 오일쇼크 기간 중 거시변수 추이

○ 제 1차 오일쇼크는 시리아, 이스라엘 간 제4차 중동전쟁으로 미국, 영국, 서독 등에 석유금수조치 단행과 OPEC의 일방적인 원유가 인상, 매달 5% 산유량 감소 결정 등 정치적 요인에 기인하였음

- 공급충격에 의한 가격상승은 당시 물가 상승과 임금상승으로 이어지고 기업들의 실적부진으로 주식과 부동산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함
- 반면, 유가 등 실물자산의 가격은 급등한 후 인플레이션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급락세를 보임
- 1차 오일 쇼크는 기간 중 국제유가가 211.56%로 폭등하였고 물가는 21.00%p로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하여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 라 불렸으며, GDP는 4.62%p 하락하였음

2) 2차 오일쇼크 (1978년~197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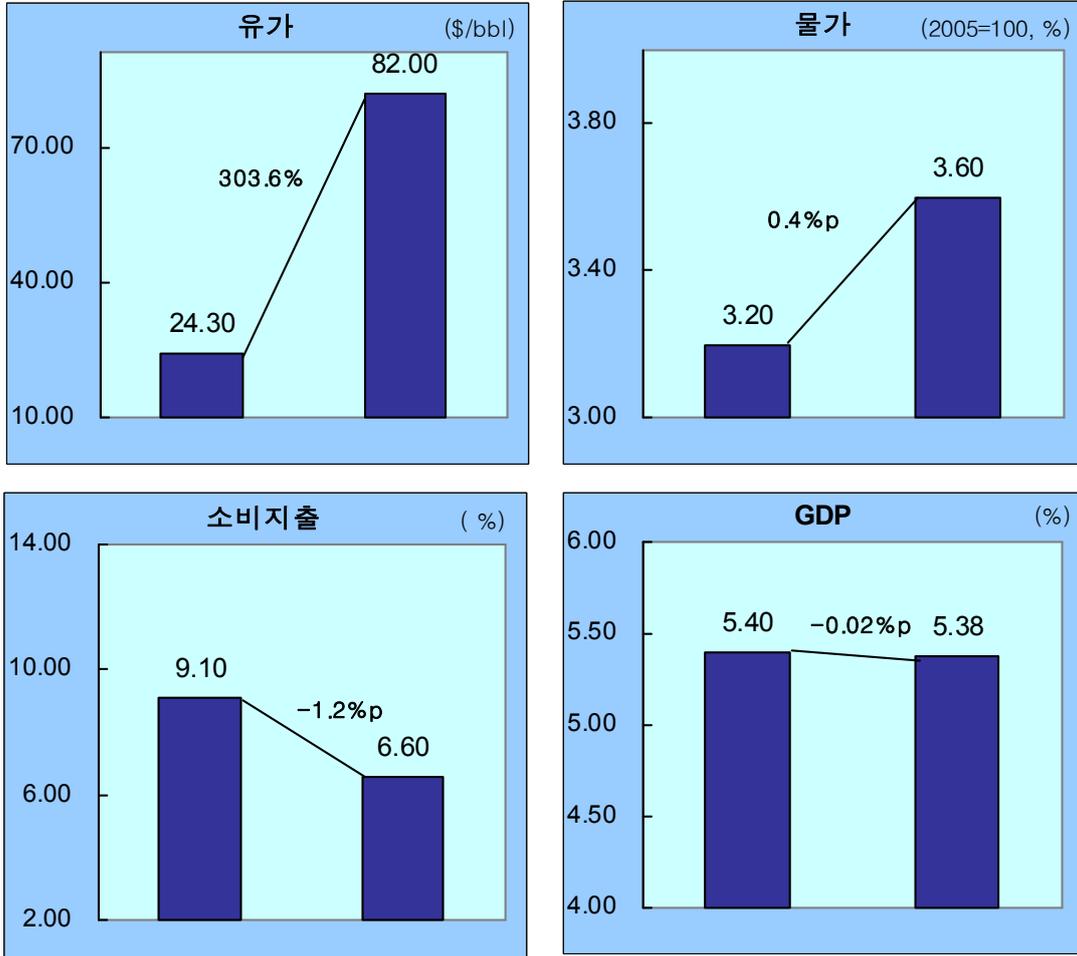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전국)

<그림 4> 제2차 오일쇼크 기간 중 거시변수 추이

- 제 2차 오일쇼크는 이 기간 중 이란혁명과 80년 이란, 이라크 간 전쟁으로 중동정세 불안의 정치적 요인으로 일시적 원유 수출 및 생산 감소에 기인함
- 이 기간 중 유가 상승은 공급충격에 의한 가격상승으로 급격한 가격상승 뒤 점진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냈음
- 제 2차 오일쇼크 기간 중 유가의 상승률은 96.1%로 나타났으며, 물가는 18.32% 상승하였으며, 소비지출 -0.50%로 소폭 하락하였고, GDP는 2.87%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1차 오일쇼크에 비해 2차 오일쇼크로 인한 유가 상승 및 물가, 소비지출, GDP 부분의 파급은 비교적 적었던 것으로 보여짐

### 3) 최근 유가급등의 특징 (2002년~2008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전국)

<그림 5> 최근 유가급등 기간 중 거시변수 추이

○ 최근 고유가 추이는 원자재 가격 급등과 동반하여 진행

- 그러나 세계 석유시장 공급부족 현상 심화, 산유국의 정정 불안, OPEC의 고유가정책 유지, 개도국(중국, 인도 등) 석유수요 증가와 같은 공급 및 수요충격에 의한 구조적 요인 등 복합적인 요인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함
- 또한 원자재가격 급등 원인은 석유 및 원자재의 공급능력에 비해 이머징국가들의 원자재수요급증이라는 초과수요에 기인하여 제 1,2차 오일쇼크와 다른 양상을 보임

- 그 외 서브프라임 사태 등 미국의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추가 금리인하로 달러화 가치 하락세 지속으로 단기차익을 노린 국제적 투기자본 가세에도 그 원인이 있음
- 거시경제적인 특징으로 물가 상승율은 0.4%p이나 1차 오일쇼크 (21%p)에 비해 상승폭이 적고, 2차 오일쇼크(3.85%p)보다 3.45%p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제 1,2차 오일쇼크에 비해 상승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서울의 유가는 235.9% 상승한 82.3\$/bbl을 기록하였으며, 물가의 경우 0.1%p 상승하였으며, 소비지출은 -1.2%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물가 상승률을 제 1,2차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체감경기는 생활형편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여 제 1,2차 오일쇼크때 보다 유가 상승에 따른 파급효과를 크게 느낄 수 있음

<표 1> 오일쇼크 시기별 유가, 물가, 소비지출, GDP의 현황

유가	현재 > 1차 오일쇼크 > 2차 오일쇼크
물가	1차 오일쇼크 > 2차 오일쇼크 > 현재
소비지출	현재 > 2차 오일쇼크
GDP	1차 오일쇼크 > 2차 오일쇼크 > 현재

- 유가 상승률은 제 1,2차 오일쇼크에 비해 최근의 유가 상승율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소비지출의 경우 제 2차 오일쇼크보다 최근의 상승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성장의 경우 제 1차 오일쇼크때 하락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2차 오일쇼크 그리고 현재 순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 고유가가 서울경제 미치는 영향

- 국제유가 상승 시 서울의 생산은 1개월, 소비는 2개월, 물가는 4개월의 시차를 두고 영향
  - 국제유가 상승은 원유를 중간재로 사용하는 모든 상품가격을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이들 제품을 최종재로 사용하는 관련 제품의 가격 상승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침
  - 2008년 2월 중 수입 물가지수(2005=100, 원화 기준)는 121.6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2% 상승하였으며, 특히 원유 등 원자재의 수입 물가지수는 159.6으로 폭등함
  - 국제유가(두바이유)와 서울의 생산, 소비, 물가 간의 교차상관관계(cross-correlation) 분석 결과, 유가 상승은 생산에 1개월, 소비에 2개월, 물가에 4개월의 시차를 두고 서울경제에 영향을 미침<sup>1)</sup>
- 국제유가 10% 상승 시 서울의 성장 0.38%p 둔화
  - 소규모 개방경제 형태의 SVAR모형<sup>2)</sup>으로 고유가 충격의 카운터팩추얼 실험(counterfactual simulation) 결과, 고유가 추세가 장기화되면 서울의 경제성장 저하, 민간소비 감소, 물가상승 압력 가중, 고용 침체 등이 가속화될 것으로 분석
  - 국제유가 10% 상승 시 서울의 경제성장은 향후 2년간 0.38%p 하락, 소비는 1.52%p 둔화, 물가는 0.38%p 상승, 고용은 0.46%p 침체될 것으로 전망(<표 2> 참조)

<표 2> 두바이유 10% 상승 시 향후 2년간 서울의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단위 : %P)

변수	경제성장	소비	물가	고용
영향정도	-0.380	-1.517	0.376	-0.462

주 : 상기 수치는 <그림 3>에서 계산된 두 가지 충격반응곡선(유가 충격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을 누적하여 그 차이의 향후 8분기간 평균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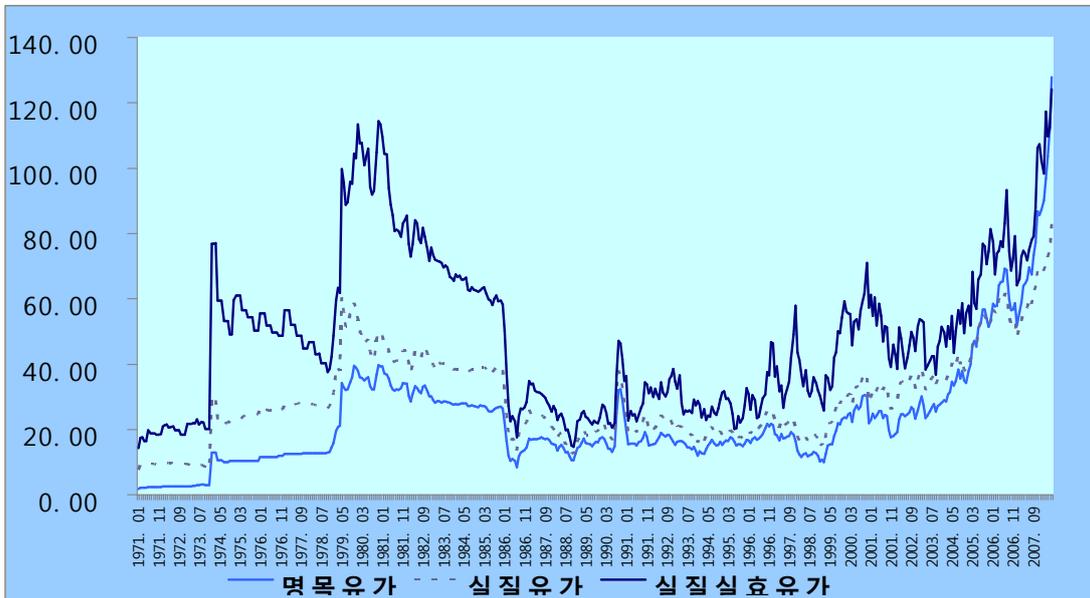
## 3. 실질실효유가에 의한 서울시 산업별 영향

- 1) 서울의 생산, 소비, 물가의 변수로 소비자물가지수, 대형소매점·백화점·대형마트의 경상지수 평균, 산업생산지수 등을 사용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했음.
- 2) 서울의 지역내총생산, 취업자 수, 가계소비지출, 소비자물가지수, 종합주가지수, 환율, 금리, 두바이유 등으로 모형을 구성

### 1) 실질실효유가 추이

○ 최근 실질실효유가 제1·2차 오일쇼크 수준 상회

- 실질유가에 원유집적도(원유소비량/실질GDP)를 고려한 실질실효유가는 최근 124.2\$/bb1을 기록, 제1차 오일쇼크 기간 중 최고치(76.9\$/bb1)보다는 47.3\$/bb1상회, 제2차 오일쇼크 기간 중 최고치 109.8\$/bb1와 비슷한 수준에 접근
- 현재 실질실효유가 수준이 제2차 오일쇼크 보다 소폭(14.4\$/bb1) 높은 점을 고려하면 고유가에 대한 서울경제의 충격이 제2차 오일쇼크 때보다 클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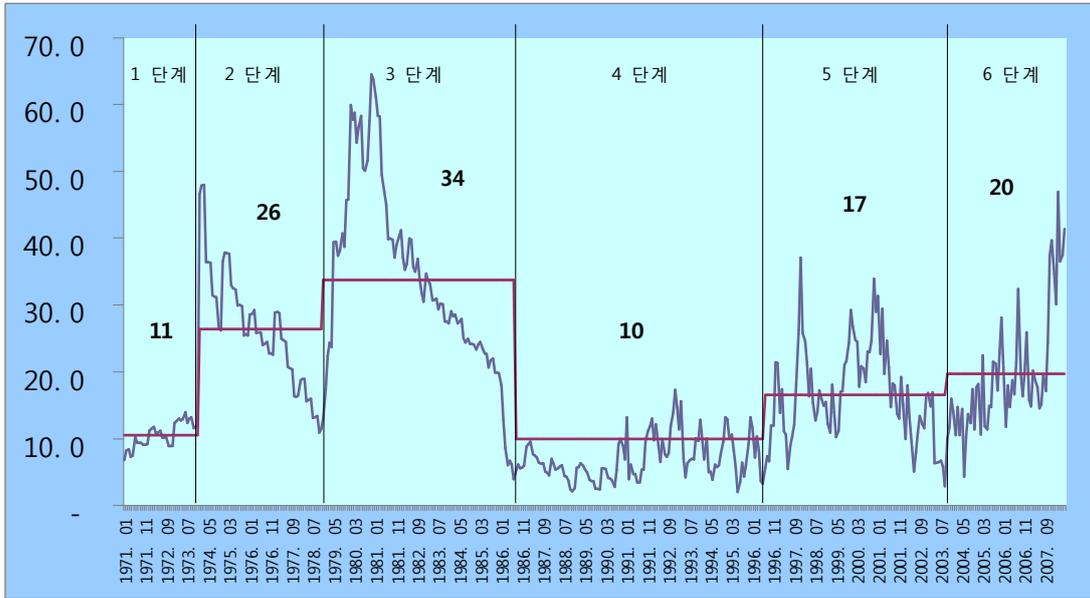
주: 실질실효유가 = 실질유가 x 원유집적도(=원유소비량/실질GDP)

자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SDI)

<그림 6> 명목·실질·실질실효유가 추이

○ 1986년 이후 실질실효유가와 실질유가 차이 지속적으로 증가

- 1971년 이후 실질실효유가와 실질유가의 차이는 6개의 국면으로 분류가능하며 1986년 까지는 각각 평균 11\$/bb1, 26\$/bb1, 34\$/bb1로 증가하였다가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한 뒤 10\$/bb1, 17\$/bb1, 20\$/bb1로 증가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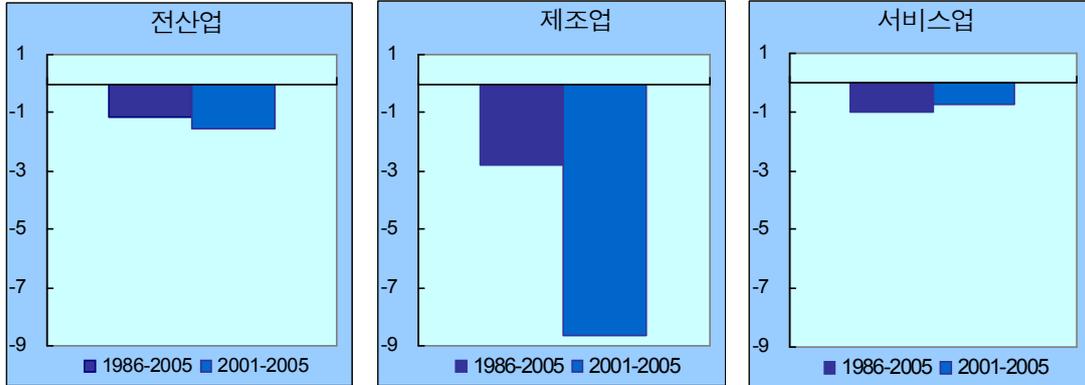


자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SDI)

<그림 7> 실질-실효 및 평균

- 실질실효유가 차이는 현재까지 총 6단계로 구분지어 진행되고 있음
  - 1단계 안정기, 2단계 1차 오일쇼크기, 3단계 2차 오일쇼크기, 4단계 안정기, 5단계 상승기, 6단계 유가 상승기로 구분 할 수 있음
- 1971년 10\$/bbl이던 실질실효유가 차이는 두 번의 오일쇼크로 인해 6배이상 급등
  - 1차 오일쇼크를 맞이하면서 50\$/bbl로 급등하다 다시 안정을 찾는 듯 하였으나 2차 오일쇼크 기간 중에는 62.5\$/bbl까지 상승하였음
- 1980년대 후반 이후 실질실효유가의 차이는 안정세를 유지하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점차 증가하기 시작, 최근에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임
  - 현재 유가급등의 차이는 50 \$/bbl선에 육박하여 1차 오일쇼크때와 비슷한 실질실효유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예상컨대 2차 정도까지 격차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의 유가안정정책 등으로 안정세를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2) 실질실효유가에 따른 서울시 산업별 탄력도



〈그림 8〉서울시 산업별 탄력도(실질실효유가 기준)

### ○ 실질실효유가의 변화에 대해 제조업 부분 큰 영향

- 서울 지역의 전산업의 경우 최근 분석기간 중 실질실효유가에 대한 생산에 미치는 탄력도는 1.5445로 전체 분석기간 1.1467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최근 유가 급등에 따른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제조업의 경우 최근의 실질실효유가에 대한 탄력도가 8.6685로 전체 분석 기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어 유가급등에 따른 영향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
-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탄력도가 전체 분석기간에 비해 소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제조업 부문의 탄력도

경제활동별	컴퓨터 정보통신	1차금속	기계전기가전	정밀기기	비금속광물	석유화학고무
1986-2005	-4.9761	-4.3763	-2.5195	-2.7823	-2.1131	-1.5323
2001-2005	-18.2501	-15.9924	-8.5551	-7.9397	-7.9074	-6.6329
경제활동별	목재종이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섬유	의류신발	음식료 및 담배	자동차 및 운송장비제조
1986-2005	-2.5687	-0.7085	-1.1459	-2.6871	0.7585	16.6285
2001-2005	-5.8053	-5.2755	-4.3461	-3.9283	-0.3786	49.6660

- 제조업 부문별 탄력도를 살펴보면 컴퓨터 정보통신, 1차금속 등이 유가 상승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이들 분야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탄력도가 이전보다 크게 증가 하고 있어 최근에 유가 상승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 외 음식료 및 담배, 의류 신발 등은 유가 상승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향후 100\$대비 고유가 추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유가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난 컴퓨터정보통신, 1차 금속, 기계전기가전 등의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함

〈표 4〉 서비스업 부문의 탄력도

경제활동별	건설업	교육 및 사회보장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운수업	통신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986-2005	-5.3937	-4.8365	-2.1416	-2.1189	-2.5326	-1.9698
2001-2005	-15.5890	-13.8185	-5.8284	-4.9396	-4.6716	-2.6792
경제활동별	금융보험업	문화 사회 및 기타서비스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숙박 및 음식점업	도소매업	-
1986-2005	-0.3910	0.6504	2.1566	1.6663	3.9790	-
2001-2005	2.2905	6.3495	6.9281	7.8295	13.1054	-

- 서비스 분야의 탄력도는 제조업보다 큰 영향은 작으나 산업 부분별로 건설업, 도소매업, 교육 및 사회보장부문 등이 비교적 유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금융보험업, 문화사회 및 기타 서비스 등은 비교적 유가의 영향이 적다고 볼 수 있음
- 그 외 숙박 및 외식업, 도소매업 등은 유가의 영향보다 서울의 산업구조의 변화로 양의 탄력도를 보임

### III. 서울의 산업별, 지역별 석유제품 소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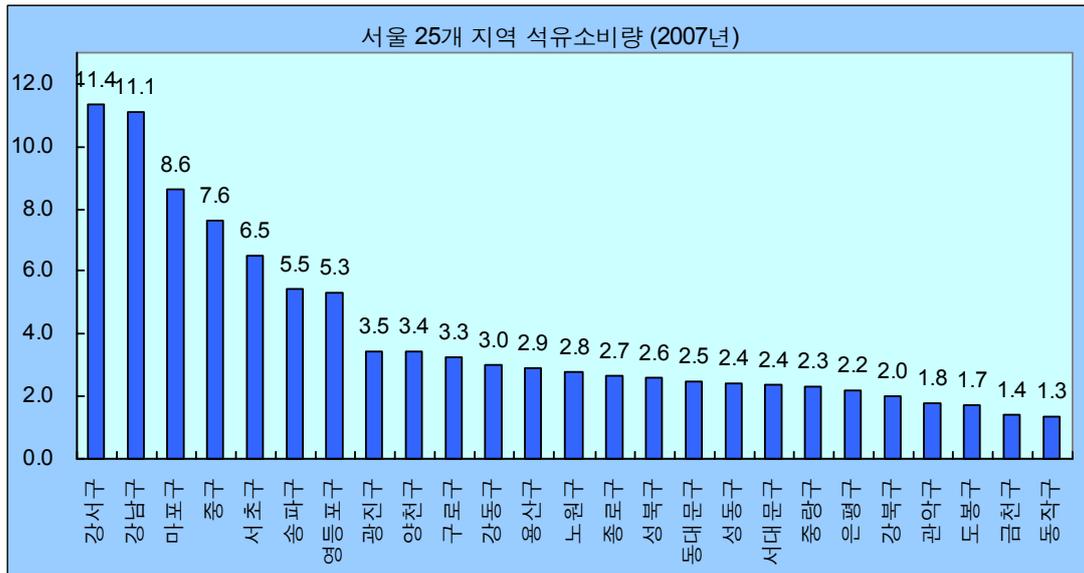
#### 1. 2007년 기준 산업별, 지역별 추이

〈표 5〉 서울지역 25개 산업부문별 석유제품 소비비중 (2007년)

(단위: %)

도로	항공	상업	화학제품업	건설업
55.0	11.9	7.4	7.2	5.0
기타에너지	가정	공공	농림수산업	해운
2.9	2.8	2.0	1.5	1.2
기타제조업	철도	제지·인쇄업	요업	철강업
1.2	0.8	0.5	0.4	0.1
섬유제품업	식품·담배업	비철금속산업	기계조립업	발전
0.1	0.0	0.0	0.0	0.0
수송장비업	광업	목재업	석유정제	가스제조
0.0	0.0	0.0	0.0	0.0

- 2007년도 서울의 산업부문별 석유 소비는 도로(55.0%), 항공(11.9%) 등 수송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상업(7.4%)등이 큰 비중을 나타냄
- 도로부문의 지역 소비량은 여전히 강남구(9.6%)와 서초구(8.1%)가 높았으며, 상업 부문은 영등포구(12.9%)와 강남구(10.7%)가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마포구(8.6%)는 화학제품업(74.6%)과 기타 제조업(10.6%) 등의 산업부문 석유소비량이 높았으며, 중구(7.6%)의 경우 항공부문(69.3%)의 산업에서의 소비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자료: 한국석유공사

<그림 9> 서울시 25개별 석유소비량 (2007년)

- 서울시 2007년도 석유소비량은 수송부문의 영향이 큰 강서구가 1위로 11.4% 점유함
- 항공부문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2000년 대비 강서구의 석유소비량은 9.5%p 하락
- 그 다음으로 강남구가 11.1%로 도로(47.8%), 상업(7.0%), 가정(4.0%) 부문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그 외 마포구(8.6%), 중구(7.6%), 서초구(6.5%) 순으로 소비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관악구(1.8%), 도봉구(1.7%), 금천구(1.4%), 동작구(1.3%)는 석유소비량이 제일 낮은 것으로 분석됨

## 2. 2000년 대비 2007년 기준 산업별, 지역별 상대적 변화 추이

〈표 6〉 산업별 석유소비 증감율 (2000년 대비 2007년)

(단위: %)

해운	비철금속산업	요업	화학제품업	기타에너지
3416.8	1990.2	777.0	588.7	240.3
제지·인쇄업	철강업	발전	목재업	기타제조업
237.8	90.2	22.2	0.0	-4.1
도로	철도	수송장비업	상업	항공
-7.1	-23.9	-44.6	-44.9	-46.0
공공	건설업	농림수산업	광업	기계조립업
-48.1	-51.6	-62.3	-65.5	-65.6
섬유제품업	가정	식품·담배업	석유정제	가스제조
-72.7	-76.2	-83.7	-100.0	-100.0

- 산업별 석유소비량은 해운이 3416.8%로 가장 높은 증가율 기록함
  - 비철금속(1990.2%), 화학제품(588.7%), 기타에너지(240.3%), 제지 인쇄업(237.8%)  
부문의 소비량이 급증
  - 또한 요업(777%) 등의 서비스업 석유 소비량 급증
- 기타제조업(-65.6%)과 도로(-7.1%), 철도(-23.9%) 외 14개 산업분야는 2000년도에  
비해 석유소비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철도(-23.9%), 항공(-46.0%) 등 석유 소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의 소비량이 감소
  - 석유(-100%), 가스관련 산업(-100%)의 소비량이 가장 큰 감소율을 보임



## IV. 선진국 사례와 서울시 정책방향

### 1. 선진국의 사례

- 선진국들은 고유가 지속에 대해 유류세 인하 등 일시적인 가격부담 완화정책으로 대응하지 않음
- OECD 국가 등에서도 유가상승에 대응하여 최근 2년간 유류세 등 세금을 인하한 경우는 극히 예외적
- 산유국인 멕시코의 경우 유가상승으로 인해 석유관련 조세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유류세를 인하한 특수한 경우에 해당

〈표 7〉 주요 OECD 국가의 휘발유 세금 변화율(2004.12~2006.9)

	터키	그리스	이태리	영국	일본	한국	미국	멕시코
상승률(%)	35.3	13.6	5.5	3.7	2.8	1.9	1.9	△57.4
상승률 순위	1	4	12	21	24	26	27	29

- 오히려 선진국들은 석유소비 절감과 에너지 효율성 개선 등 중장기적 정책방향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음
- 일본·미국·EU 등은 고유가 장기화에 대비하여 석유의존도 감소, 에너지 절약 등 에너지 소비절감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 수력·원자력 비중 확대 등 에너지 공급원 다양화, 대체에너지 개발 등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대책 등을 추진
  
- 뉴질랜드
- 도시는 새로운 개발사업, 자치도시, 지역 기관, 대형 사업체의 석유 비상계획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석유 비상계획서 작성(Prepare Contingency Plans) 하였음
- 또한 홍보 교육 캠페인 (Expand on Public Education Campaign)을 실시함

○ 미국

- 「Twenty in Ten(07.1월)」: 2017년까지 ①휘발유 소비의 15%를 신·재생연료로 대체, ②기업평균연비를 강화하여 휘발유 연간 소비의 5% 절감 등
- 오클랜드는 석유 에너지 팀 구성 (Oil Energy Task Force Team) 하여 향후 20년간 연 3%의 석유소비 감축을 목표로 일하고 있음

○ EU

- 「에너지 가이드 라인(07.1월)」: 2020년까지 ①탄소배출 감축목표 20%, ②신재생에너지 비율 6%→10%, ③수송 연료중 바이오연료 비율 10%로 제고 ④에너지 절약 20% 달성 등
- 영국은 에너지 효율과 액션플랜 2007을 마련하였으며, 런던역시 런던시장의 에너지 종합대책 수립하였음

○ 일본

- 「신국가에너지 전략(06.5월)」: 2030년까지 ①에너지절약 30% 추진, ②석유의존도 45% → 40%로 축소, ③해외개발 석유공급 15% → 40%로 확대 등

**2. 서울시 정책방향**

- 최근 고유가는 국제 원유시장 수급불균형에 따른 구조적 현상으로 고유가 추세가 장기화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서울시는 저소득층을 위한 유가 보조금, 유가 환급금의 대상 확대와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 해야함
- 행정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석유시장의 유통구조 투명화, 에너지 절감 등 기존 정책방향을 유지하면서 고유가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경제적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선별적 지원대책이 일괄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 증대

- 연료 고갈에 대비하는 대체에너지 개발 추진 및 기업과의 공동 연구를 통한 신재생 에너지 연구 투자 확대
    - 특히 대체에너지 개발 연구와 사업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 내 관련 학과를 확대 및 전문 교육 기관 설립 등의 노력 필요
    - 또한 SH공사가 건설하는 장기 임대주택이나 향후 예정되는 마곡 등 신개발지역, 재개발지역에 집단에너지 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 서비스 요금의 단계적 인상과 체감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의 유통질서 확립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
    - 고유가에 따른 민생안정을 위해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유가 보조금 정책을 지속가능성 측면의 정책이 되도록 개선이 필요
  - 에너지카드를 지급하여 가스·전기요금, 난방, 주유대금 등 에너지 소비의 결제에 사용하고, 정부가 추후 정산하는 방식의 에너지 바우처(Voucher) 제도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 에너지 바우처 도입은 지원절차, 결제체계 등과 관련한 사전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국제유가 급등시 저소득층 지원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도입 방안을 마련해두고자 하는 것임
- \* 에너지 바우처(Voucher): 에너지카드를 지급하여 가스·전기요금, 난방, 주유대금 등 에너지 소비의 결제에 사용하고, 정부가 추후 정산하는 방